

# 장성 독거 어르신 사물인터넷이 돌본다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 선정  
GPS·인체감지센서 등 설치  
치매 어르신 등 안심 케어  
영신마을 시범 실시후 확대

장성군이 독특한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독거·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에 착수했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주민주도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공감e기득)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안 문제를 발굴·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장성군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해 독거·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에 착수한다. 복지프로그램에 참가해 건강체조를 배우고 있는 어르신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장성군은 이번 공모에서 디지털기술을 이용해 독거 어르신의 고독사를 방지하고 치매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장성형 안심 케어 시스템’인 ‘IoT@엄니어디가?’를 응모해 선정됐다.

IoT 기술 기반의 이 시스템은 독거·치매

어르신의 주요 동선에 비콘, GPS, 인체감지센서 등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위치와 심박동 수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각각의 센서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스마트기기와 연동돼 응급상황 발생때 마을 이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 스스로 돌봄단’과 복지 담당자, 타지 거주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알려줌으로써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함께 설치되는 ‘안심 지키미’ 모듈 박스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알려 줌으로써 1년 365일 쾌적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군은 ‘IoT@엄니어디가?’ 시스템을 시범마을로 지정된 진원면 영신마을의 독거 어르신과 치매 어르신들에게 우선 보급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전체 마을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IoT@엄니어디가?는 위급상황 발생에 이웃들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대응할 수 있고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상황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장성형 안심 케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길쌈놀이 노래 보유자 어르신들이 길쌈노래 보존과 전수를 위한 녹음작업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 화순군 ‘내평리 길쌈놀이’ 관광상품 개발

화순군은 ‘내평리 길쌈놀이’를 전승 보존하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내평리 길쌈놀이’는 화순군 화순읍 내평리 일대 목화밭에서 고된 노동을 하던 여인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노동요다.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내평리길쌈노래보존회를 결성해 사라질 위기에 있던 노래를 보존했으며 2013년에는 화순군향토문화유산 제64호로 지정됐다.

화순군은 지난 21일 마을 주민을 상대로 길쌈놀이 발굴과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군은 길쌈놀이 전승 기반을 마련하고 체험행사로 만들어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길쌈놀이 노래 보존 및 전승을 위해 노

래 보유자 6명이 길쌈노래를 녹음해 디지털 파일로 제작했다.

공연과 직조, 인형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목화탕수육과 목화떡, 목화드라이플라워, 염색목화, 목화디퓨저, 목화파우치백 등 목화를 이용한 판매 상품도 개발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또 마을 입구에 목화동산을 조성하고 목화가 개화하는 10월에는 길쌈공연과 목화체험 등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길쌈놀이 전승기반 마련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체험휴마을 신청과 길쌈축제, 목화재배농가 확대 등 길쌈마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화순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 교육



화순군은 여름철 무더위 속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사진) 참여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참여자 교육을 실시한다.

화순군은 사업별 활동현장 방문을 통해 혹서기인 7·8월 2개월 동안 참여자 활동시간 단축 운영을 안내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과 여름철 건강관리 등의 내용을 전달한다.

특히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시로 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폭염 및 각종 위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소득 창출에 따른 생계 안정과 사회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 79억원의 예산을 확보, 311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노인들이 사고없는 활동을 통해 소득 창출과 건강 증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어르신 목욕, 이·미용 이용 ‘장성군 효도권’ 지원금 내달부터 1000원 인상

지역 어르신들에게 목욕과 이·미용 비용을 지원하는 ‘장성군 효도권’의 지원금이 인상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배부했던 효도권 1매당 지원단가를 기존 4000원에서 1000원이 오른 5000원으로 올려 지원하기로 했다.

효도권 사업은 어르신들이 목욕과 이·미용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도권을 매달 1인당 3장씩 지급하는 장성의 대표적인 실버복지 정책이다.

장성군은 6월까지 1장당 4000원(1인 연간 14만40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인상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은 매월 1만5000원 상당의 효도권을 받게 됐다.

그동안 목욕업소를 찾는 어르신은 평균 5000원인 목욕비에 맞춰 효도권에 1000원을 보태 이용하고 이·미용 업소도 효도권 액면가와 실제 이용료의 차이가 있어 이용자와 업소 모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장성군은 불가상승과 목욕업소 이용 금액 등을 고려해 효도권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올해 추경에 5억5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효도권 지원액 인상을 준비해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블루베리 농장에서 일손돕기를 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 여행에 농촌 일손 돕기 더하니 ‘즐거움 2배’

담양 찾은 관광객 60여명과  
담양자원봉사센터 ‘블루투어’

담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병노)는 최근 담양을 찾은 관광객들과 연계해 농촌 일손돕기와 여행을 함께하는 ‘블루투어’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블루투어(Voluntour)는 자원봉사를 뜻

하는 볼런티어(Volunteer)와 여행의 투어(Tour)가 결합된 신조어로 여가를 활용해 봉사활동과 여행을 함께 즐기는 것을 말하며 바쁜 농가에는 일손을 도시의 자녀들에게는 체험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60여명은 블루베리 수확 돕기와 대바구니 만들기 체험, 대숲 맑은 담양살을 이용한 쌀피자 만들기 체험

에 이어 메타프로방스를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 등 여행에 봉사까지 더해 즐거움을 배가했다.

이병노 담양군자원봉사센터장은 “앞으로도 여행의 즐거움과 방문지역에서의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준비해 다시 찾는 담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ig@kwangju.co.kr

## 담양농기센터 한우농가 맞춤형 컨설팅 호응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양창범)은 지난 26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한우개량연구회 회원 3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시행했다.

이날 한우농가 맞춤형 컨설팅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분야별 전문

가가 컨설턴트로 나서 한우개량과 가축번식, 사양관리, 축산환경, 가축질병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컨설팅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의 금급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류한규 담양군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연구과 과장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육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내년부터 현장기술 지원이 필요한 농가를 방문해 한우 암소개량 등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별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 기자 jig@kwangju.co.kr

#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약 1000만원~~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 H. 010-6834-7400

